

다산포럼



남경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그리고 보니, 올해가 '갑진왜란' 120년이다. 연말까지 밀렸던 큰 숙제들을 마무리하고 축제 때문에 읽다가 만 책을 새해 아침에 다시 집어들다가 깨우친 일이다. 황태연 동국대 명예교수의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2017)이라는 책이다. 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러일전쟁이 실은 러일 개전 3일 전에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시작되었다고 하여 이 전쟁을 갑진왜란으로 부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전쟁 이후 승리자의 역사 서술에 익숙해진 나머지 국내의 대다수의 역사가들에게 잊혀진, 또는 무시된 사실이다.

국뽕 사관이라고? 아니다. 러시아사의 세계적 석학인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두 권으로 나온 '러일전쟁: 기원과 개전'이란 책에서다. 한국에는 이우현 한국지정학연구원 원장의 집념의 번역 끝에 2019년에 소개되었다. 그 장대한 책의 결론 부분에서 저자는 일본의 진해만 점령과 부산 및 마산의 전신국 제압이 '러일전쟁이라 불리는 전쟁'에서 최초로 수행된 군사행동이었으며, 이것이 한국의 주권

갑진왜란 120년의 새해 단상

과 영토에 대한 침략행위였다고 규정했다. 와다 교수의 책은 개전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를 이어 황태연 교수는 '갑진왜란' 개전 후 대한제국 국군과 민군(의병)의 연합군이 일본의 침략전쟁에 맞서 전개한 '국민전쟁'의 양상을 재현하고 있다. 그것은 국권상실 후 항일독립투쟁으로 이어져 카이로선언을 쟁취해 냈고, 그로부터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으로 부활했다. 갑진왜란에 대한 국민전쟁이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역사적 연속성을 보증하고 있다.

갑진왜란 120년의 새해, 한반도 주변 정세는 다시 당시를 방불케 할 혼돈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세계는 우크라이나와 가자에서 두 개의 전쟁을 수행 중이다. 대만 총통선거, 미국과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 한국의 총선이 지역질서에 큰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

지지를 하락에 시달리는 일본 기사다 내각이 해산 총선거를 치르려면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이 된다. 게다가 북한이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교전국가'로 재 규정할 것이 지역질서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그 변화가 어디로 향할지 모르지만 2024년은 세계사적 대전환의 결정점이 될 것이 확실하다. 공교롭게도 이는 갑진왜란 120년의 해를 맞이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과연 우리는 두 번의 육습갑자를 지내고 얻은 성찰 위에서 2024년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을 찾다가 우리 외교안보를 책임질 면면을 확인해 보고 우울해진다.

조태열 외교장관 후보자가 강제동원 피해 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을 바라보는 입장이나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가 일제 강점기에 대해 보여주는 역사인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애써 판결금의 처리나 일본의 사과와 관련한 기술적 문제로 격하하려는 강제동원 피해 문제의 핵심은 '일제에 의한 한반도의 불법적 강제 점령' 문제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과 이들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보여주는 인식은 일본 정부가 그 불법성을 부인하며 일관해서 주장하는 것들과 달아 있다.

그런데 '대한 국민'이 일본의 침략과 불법 강점에 맞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의 건립과 재건에 이르기까지 부단한 국민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역사인식에 서면, '국제법'을 거론하며 으르렁대는 일본의 논리는 지리멸렬하기 그지없다.

그런데 우리 외교안보를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 분명히 그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의 논리로 우리의 원칙을 폄하하고 있다. 이런 언동을 보게 되면 갑진왜란 때, 일본의 승전에 환호하는 개화 지식인들을 다시 보는 듯하여 암울하다. 그때야 메이지유신 이래 날로 강성해지는 일본이 눈부셔 보였다고 치자. 그런데 지금은 예?

여기까지 생각하다가 다시 갑진년 새해가 어떻게 열렸는지 세계를 둘러보고, 우리를 돌아보니 체증이 난다. 남의 논리로 머리가 가득한 사람들에게 이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 역사를 맡길 수 없다. 국민의 대표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국민들이 다시 '국민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청춘 특·특



조주형 광주대 문예창작과 1년

얼마 전 AI 소설가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봤다. AI가 소설을 잘 쓸 수 있는가를 주제로 한 실험 영상이었지만, 문예 창작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AI가 쓴 소설과 사람이 쓴 소설을 보여주고 AI가 쓴 소설을 찾아내는 실험이었다. 이 영상을 보고 처음 든 생각은 벌써 AI가 소설을 쓴다는 것이 기본값이 됐구나 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그 값에 더해 AI에게 소설을 '잘 쓸 수 있는' 가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새삼 AI의 발전이 제곱 단 위라는 걸 체감했다.

실험 결과 학생들은 AI가 쓴 소설을 찾아냈다. 문장의 흐름이나 단어 배치의 어색함 등이 근거였다. 다만 충격적인 것은 학생들의 인터뷰에서 나왔다. AI가 썼다고 말할 해주지 않았다면 사람이 썼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내용의 말이였다. 무서웠다. 문예 창작을 전공하는 나로서 위기감을 느꼈다. 소설가를 꿈꾸는 입장에서 30초 만에 관공은 소설을 쓴 AI를 보며 허탈함이나 무기력함을 느꼈다. 정말 '잘' 쓸 수 있게 됐다는 게 화와 당황이다. 영상을 클릭하면서도 실험

'AI 소설가'를 대면하는 시대

의 질문이 조금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한 내 착각이었다.

영상을 다 보고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나랑 AI 사이에 사람과 AI라는 것 말고 다른 점이 있나?"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봐도 잘 모르겠다는 답만 떠올랐다. 아직 완결성이 높은 소설을 쓰지 못하는 AI 나 나나 같은 습작생 처지라는 생각만 들었다. 그 다음으로 든 생각은 누가 습작생 시절을 더 빨리 벗어날까에 대한 것이었다. AI가 나보다 더 빠를 것 같다는 불안감으로 오싹했다.

나는 관련 기사를 찾기 시작했다. 내심 AI가 인간 소설가를 대체할 수 없을 거라는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면서였다.

아무리 자료를 뒤져도 내가 내리는 결론은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AI가 소설을 쓴다고 해도 그게 인간이 쓴 게 아니라면 독자들에게 읽히지 않을 것이라는 한 작가의 말을 시작으로 뒷받침하는 말들을 찾았지만, 결론은 그렇게 낫다.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알게 된 한국AI작가협회의 홈페이지에는 커다랗게 'AI와 함께하는 창작의 불꽃, 새로운 예술의 시대'란 글귀가 쓰여 있었다. 이미 작가의 세계에서 AI를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인간이 작가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듯 보였다.

다른 영상 매체나 기사에서도 앞으로 창작은 AI와 함께 해야 한다는 걸 제시하고 있었다. 자존심 상했다.

이제 막 작가의 길로 들어선 내게 작가는 이야기를 생각하고, 그걸 글로써 써 내려가는 사람의 이미지인데 그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이야기를 생각하는 과정에서만 쓰는 과정에서만 누군가의 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게 내 것을 빼앗기는 느낌이었다. 다만 그뿐이었다. 효율 앞에서 자존심은 이길 수 없었다. 작가라는 직업을 AI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AI를 활용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앞으로의 시대를 상상하며, 하나 더 의문이 들었다. 만약 AI가 창작을 완전히 할 수 있다면? 인간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감정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면? 내가 AI와 인간 소설가에 대해 한 첫 의문의 답이 이 물음에서 나왔다. 아직 AI는 인간의 감정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 그게 AI와 인간의 차이다. 그래서 인간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AI가 인간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모르겠다. 다만 그때가 온다면 정말 AI가 인간 소설가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들었다. 그런 내 걱정엔 벌써 거기까지 생각하는 건 오버라는 말을 들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AI가 소설을 쓸 수 있을까'란 질문을 보고 몇 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 '잘 쓸 수 있을까'란 질문을 본 게 내게는 충격이었다. 최악의 최악을 상상하게 됐다. 나는 그런 시대를 많은 소설가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I를 어디까지, 언제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정말 AI를 활용해야만 소설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말이다.

기고

나눔을 계획하다



김동수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원장

연말연시가 되면 사람들은 신년 계획을 세운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게 금주나 금연, 그리고 운동이다. 자격증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합격률, 사업가나 직장인은 성과나 승진을 목표로 계획을 세울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목표를 세우지만, 혹시 여기에 새해를 맞아 나눔 계획을 더하면 어떨까. 나눔을 계획하는 방법을 단계로 나누어 소개한다.

첫째, 누구를 도울 것인가? 인간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한다. 도울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 일반적으로 빈곤한 사람인데, 나눔의 손길이 줄어드는 탓인지 연탄이 부족할 정도로 취약계층의 겨울은 힘들다. 그 다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은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이다.

정초부터 지진이 일본 노토반도를 강타했다. 지난해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보다는 사상자 수가 적지만 수만명의 이재민이 엄동설한에 집을 잃고 구호 물품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무차별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와 고통은 더욱더 심각한 지경이다.

둘째, 무엇을 나눌 것인가? 시간과 돈, 그리고 생명이야. 이를 인적, 물적, 생명으로 표현하며 '3대 나눔'이라고 한다. 먼저 시간은 '인적 나눔'이다. 몸으로 하는 봉사를 일컫는다.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내어서 활동한다. 대상자를 직접 만나거나, 시설이나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다. 단순한 봉사에서 전문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다음은 금전이나 물품으로 나누는 '물적 나눔'이다. 이를 '기부'라고 하며 소소한 모금함 기부부터 불우이웃 돕기 및 재난 성금, 정기적인 후원, 고액 기부, 유산 기부 등이다. 세 번째는 '생명 나눔'으로 헌혈이나 골수, 장기기증을 말한다. 헌혈은 혈액검사를 통해 건강관리도 하면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 지금 혈액수급은 겨울 한파와 학교 방학으로 인해 비상이다.

셋째, 얼마나 나눌 것인가?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봉사 시간, 금전이나 물품 금액, 헌혈 횟수를 얼마나 나눌 수 있는지를 계획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봉사시간은 매월 8시간, 연간 100시간, 기부는 매월 3만 원씩 연간 36만 원, 헌혈은 전월 분기마다 1회씩 연간 4회 등이다.

넷째, 어디에 나눌 것인가? 대부분은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이를 선택할 때 고려 사항은 이렇다. 먼저 관심 있는 대상과 분야를 정한다. 예를 들어 국내 아동은 조록우산, 해외 아동은 유니세프, 재난구호는 적십자, 환경보호는 그린피스 등이다.

다음은 '모금단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동하는가'를 점검한다. 마지막에는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

하는 곳을 택한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어구니 아빠' 이영학과 일본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유용 의혹은 우리 사회에 기부를 꺼리는 '기부 포비아' 현상을 만들기도 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눔 계획서를 만들어 보자. 기부는 얼마를 어디에, 봉사는 몇 시간을 어디에서, 헌혈은 몇 회를 할 것인지 적어보자. 봉사할 시간을 내거나 기부할 여유가 없다면 1일 만 보 건 기라도 도전해 본다. 요즘은 모바일 앱을 통하여 캐시 포인트나 금전을 모아 기부도 할 수 있다. 출퇴근할 때 걷는다면 탄소 중립을 위한 자연보호도 할 수 있는 건강한 나눔이 될 것이다.

고 이태석 신부는 남수단에서 행복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첫 번째 기쁨은 순수한 마음으로 톤즈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 기쁨은 나눔을 받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기쁨입니다." 이렇듯 나눔은 남에게 도움을 주지만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 나눔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비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만은 아니다. 나눔을 통해서 주는 마음을 키운다면 청탁이나 금품수수에서 정령할 수 있고 학폭이나 교사 폭행 등 우리 사회의 폭력성을 줄여 주지 않을까 싶다.

나눔의 선한 영향력이 이룰까진대, 나눔을 계획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생각만 하지 말고 종이 한 장에 적어 보자. 나눔 계획서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버킷리스트가 되도록 하자. 'It's your turn.'

社說

총장로 상권 몰락, 어제 오늘 일은 아니라지만

광주 총장로 3가에 있는 '와이즈파크'가 문을 닫았다. 유명 SPA 브랜드와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로 지난 2013년부터 영업을 해오다 10여 년만에 결국 폐업을 선택했다. 총장로 74번지인 이곳은 광주 구도심 상권의 핵심으로 총장로의 흥망성쇠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1986년 가든백화점이 이곳에서 영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절정기였다. 가든백화점은 화니와 함께 광주에 지방 백화점 시대를 열고 1980년대 총장로의 전성시대를 구가했다. '추억의 7080 총장로'가 말해주듯 총장로 전성시대를 함께 했지만 IMF를 거치며 1998년 의무 전문 쇼핑몰 '이프유'로 이름을 바꿔 달고 와이즈파크에 바통을 넘겨주던 쇠락의 그림자를 피해가진 못했다.

와이즈파크가 폐업하면서 주변 상가들도 두 곳 중 한 곳이 비어 있을 정도로 공실이 심각하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뷰어에 따르면 총장로와 금남로의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5.1%로 광주 전체 공실률(6.3%)의 3배에 가깝고 침탄1지구(3.1%), 상무지구(3.4%)에 비해서는 4-5배 가량 높다.

총장로 상권 몰락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주거지 확대에 따른 상권 다변화에 코로나19를 거치고 '세세권'인 동네 상권이 뜨면서 여러 곳에서 보이는 중심 상권이 침체된 탓이 더해졌다. 종합유리점 '왕지관'과 돈키호테 전문점 '유생촌' 등 총장로를 상징하는 노포들은 이미 문을 닫은지 오래다.

'노점 도시' 대전은 원도심 상권이 아직도 활발하다. 성심당이란 전국 브랜드가 있다는 점도 있지만 공영 등 끊임없이 볼 거리를 제공하는 노력이 있기에 가능하다. 광주에는 동명동이란 핫한 상권이 있다.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 축으로 동명동과 총장로를 연결하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상인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광주 시와 동구 등 행정기관의 역할도 크다.

광산구, 예식장 도로점용 특혜 철저히 규명

광주시 광산구의 한 예식장축이 10년 동안 공공 도로부지를 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광산구에 따르면 드메르 웨딩홀축이 지난 2013년 광산구로부터 도전동 1740㎡(527평) 도로 부지를 차랑 전·출입로로 사용하겠다고 점용 허가를 받은 뒤 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해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구는 예식장축이 애초 점용 용도와 달리 10년 동안 주차장으로 사용했음에도 뒤늦게 조치에 나서 의문을 낳고 있다.

더구나 예식장축이 부지 점용료로 월 평균 60여만 원에 불과한 연간 670여만 원을 납부해 온 것으로 확인돼 월급 점용료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매년 땅값의 한 달 이자도 안되는 할값에 사용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현재 평당 351만 4500원이지만, 현 실거래 가격을 적용하

면 평당 1500만 원대로 50억 원대를 웃돈다. 드메르 웨딩홀 인근에서 도로 부지를 허가받아 점용하고 있는 한 주민은 "현재 동일한 조건으로 점용료를 산출할 경우 해당 예식장 보다 4배 이상 비싼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광산구가 10년 동안 부당한 공공용지 점용을 방치했었다는 사실은 공공재산 관리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공공재산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로서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광산구는 드메르 웨딩홀 특혜 의혹과 관련 허가 과정은 물론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선 10년 전 부당한 점용료를 납부해 온 것으로 확인돼 월급 점용료 논란에 대해 묵인이나 방조가 없었는지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밝혀내야 한다. 예식장축의 용도의 부지 사용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엄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정부가 '2024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세컨드 홈'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가 강진·고흥 등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한 채를 더 살 경우 1주택자로 인정해 재산세·중부세·양도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하겠다는 게 골자다.

'세컨드 홈'(Second Home)은 주로 소득 기반이 갖춰진 도시 거주만이 특정 계절의 여가 활동에 활용하던 주거 형태로, 국내에서는 '별장'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세법에선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 규정한다. 정부는 소득 수준 향상, 여가 문화 확산 등 삶의 질 향상을 반영해 2022년 별장에 대한 취득세·증과세 규정을 바꾸긴 했지만 박정희 정권 때만 해도 '사치성 재산'으로 취급해 취득세를 표준세율의 3배, 재산세는 일반 재산세율의 2배를 부과할 정도였다.

'사치제'였던 세컨드 홈이 이제 더 이상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니고 소멸위기에 처

한 지역회생 해결책이라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건 콘크리트 빌딩·아파트 속에서 매일을 견디는 도시인이라면 꿈꾸는 바람이다. 평소에는 도시에 머무르고 주말에는 전원주택에 살며 휴남새 나는 산책길을 걷고 여유로움을 만끽하며 살고 싶다는 로망, 누군들 없을까. 여기에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컨드 홈 조성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언급한 빈집 환경 개선, 농촌 활성화, 투자 유도 등 세컨드 홈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첫 집도 없는데 무슨 세컨드 하우스냐'는 무주택 서민들의 한탄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자리와 문화시설이 없어 도시를 떠나서 지역민들의 고향을 먼저 들여봤으면 어땠을까. 정책 취지는 좋지만 총선 이후로 미뤄뒀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속도를 높이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시급한 농어촌 지역 활성화 방안이 아닐까 싶다. /김지를 정치부 부장 dok200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권)(주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시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52	예 항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